



위드코로나 이후 혼인 추이 변화의 특징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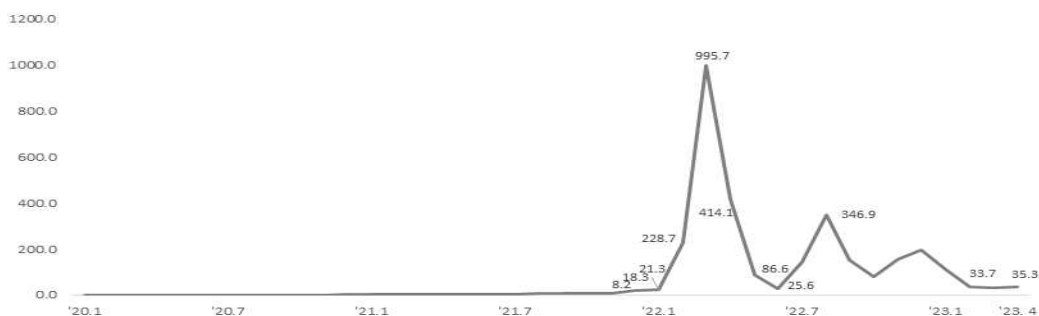
2022년 4월 중순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혼인은 2013년 이후 지속되었던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추이를 보임. 혼인 건수의 회복세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와 국제 간 왕래의 제약이 해소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특히, 2022년부터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국제 혼인이 혼인 건수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혼인 증가가 일시적일 수도 있겠으나, 최근의 회복 분위기가 고질적인 출산 감소 현상의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함

○ 본고는 2022년 4월 중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주요 인구 관련 변수 중 혼인의 변화 추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논의하고자 함(그림 1) 참조

-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월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영업시간, 모임의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도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에는 월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됨
- 그러나 2022년 4월부터는 코로나19가 급속히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업 영업시간, 각종 모임의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되면서 거리두기가 큰 폭으로 완화¹⁾되었음
- 거리두기 완화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²⁾되었으나, 2022년 4월의 거리두기 완화가 사실상 마스크만 착용하면 모든 종류의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위드코로나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혼인은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위드코로나의 시작이라는 극적인 변화 속에서 그 추이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함

〈그림 1〉 월별 확진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COVID-19 Dashboard 질병관리청(2023. 5. 2 집계 기준)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4. 1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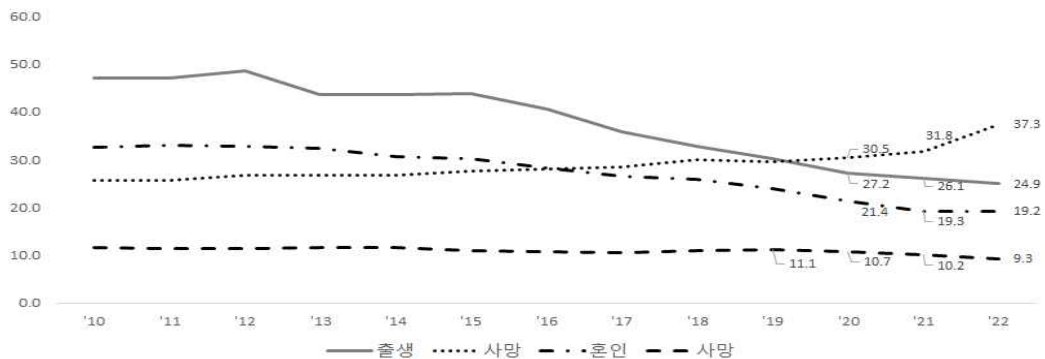
2) 2022년 4월 이후에도 2022년 9월 야외 마스크 착용의무의 전면 해제, 2023년 3월에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있음

○ 위드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출생, 사망 등 주요 인구 변수들의 변화 추세에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혼인의 경우는 지속되던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출생 감소, 사망 증가, 혼인 감소, 이혼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혼인의 경우 2021년 192,507건에서 2022년 191,690건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사망의 경우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2021년 12월~2022년 4월 사이에 급증하였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도 전년도 대비 증가세를 지속³⁾하면서 2022년 사망자는 372,800명으로 2021년의 317,680명을 크게 상회함
- 출생아 수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이나 위드코로나와 관계없이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혼의 경우 연 11만 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여 2022년에는 9만 건대로 하락함

〈그림 2〉 주요 인구 관련 변수 연간 추이

(단위: 만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혼인 건수의 경우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국제 간 왕래 제약 등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그림 3〉 참조)

- 혼인 건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된 2022년 5월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6·7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혼인 건수 추이

(단위: 만 건, 전년동월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도 사망자 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따라서 2022년 혼인 건수는 위드코로나 이전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분(1~4월 -2,706건)이 위드코로나 이후 증가분(5~12월 +1,889건)으로 대부분 상쇄되면서 전체적으로 2021년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22년 혼인에는 국제 혼인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컸으며, 향후 혼인 회복세의 지속 여부도 국제 혼인 증가의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표 1〉 참조)
- 2022년 한국인 간 혼인 건수는 2021년 대비 4,381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혼인이 3,564건 증가하면서 감소 폭을 대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3,022건(33.6%) 증가하여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혼인 542건(13.7%)을 크게 상회하면서 국제 혼인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최근 내국인 간 혼인과 국제 혼인의 추이

(단위: 건 수)

구분	전체 혼인	한국인 간 혼인(비중 %)	외국인과의 혼인(비중 %)	한국(남)+외국(여)	한국(여)+외국(남)
2019	239,159	215,516(90.1)	23,643(9.9)	17,687	5,956
2020	213,502	198,161(92.8)	15,341(7.2)	11,100	4,241
2021	192,502	179,405(93.2)	13,102(6.8)	8,985	4,117
2022	191,690	175,024(91.3)	16,666(8.7)	12,007	4,65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혼인의 증가가 일시적일 수도 있겠으나, 최근의 혼인 증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출산 감소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루어졌던 혼인의 증가나 국제 왕래 제한의 완화에 따른 국제 혼인 증가 등은 일시적일 수도 있겠으나 활용하기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혼인 기피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됨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혼인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출산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거리두기의 사실상 해제에 따른 사람 간 교류의 확대가 혼인 및 출산 등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혼인, 출산 등에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